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 초대회장 취임식

29일 포천시여성회관에서 400여명 참석 축하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 초대회장 취임식과 각 임원, 의원 취임식이 지난 29일 순학규 경기도지사와 김효성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포천시와



시의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인만 초대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상공업 발전과 <국정검정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그리고 <지역상공인의 소득창출 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기업들이 당면한 현안들을 수시로 파악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포천의 신도시 개발과 전철 7

호선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시점에서 포천상공회의소 창립과 김인만 초대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포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포천상공회의소가 중심에 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포천상공회의소 출범과 초대회장 취임을 계기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교류·협력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에는 현재 2천여 중소기업과 대형 유통업체, 골프장 등이 입주해 있으며, 송우택지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지역 상공회의소가 설립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해외자원개발 정책지원 확대해야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불안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무역협회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금, 조세 등을 적극 지원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는 산자부 등 관련부처와 기관에 건의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방안'에서 우리 나라가 에너지의 96% 이상, 필수 산업용 자원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산업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유인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자원개발자금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 성공불용자 활성화, 수출보험지원 확대, 조세감면 도입 등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 관련기관의 직접투자 확대,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선도하고 투자에 따르는 기술 리스크를 경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관련기관이 해외자원 탐사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자원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해당업계에 제공해 주고 자원분야 외교협력 강화하여 업계의 해외진출 기반을 탄탄히 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IMF 이후 종합상사들이 해외에서 철수하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마인드가 침체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해외자원 개발은 대부분 대형사업으로서 막대한 자금과 함께 고위험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 범 국가적인 지원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8년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이어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에 따르면, 광역철도는 제1차 계획의 중앙선(청량리~덕소 북선전철) 등 7개 노선(169.9km)에 이어, 제2차 계획은 신안산선(안산~여의도~청량리) 등 4개 노선(88.2km)이 추가로 건설되고, 광역도로는 제1차 계획의 사가정길~안사간 등 9개노선(41.4km)에 이어, 제2차 계획은 고양시 화전~서울 신사사거리 등 11개 구간(50.7km)이 추가로 착공된다.

특히 향후 건설되는 광역철도는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병행운행이 가능하도록 역에 대피선을 설

치토록 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의선, 경원선, 중앙선 등에 대한 복선전철화사업을 마무리하여 출·퇴근용 열차 증설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부는 방화역 등 12개소(3,556명)에 환승주차장을, 서울 강서권 등 11개소(3,833명)에 공영차고지를 건설하고, 서울외곽도시에서 서울 시내까지 급행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확대 실시하며, 수도권 21개 노선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구축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기북부지부 창립대회

순학규 경기도지사 "국민의 가장 친근한 벗" 강조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기북부지부 창립대회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800여명의 10개시군 이·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순학규 경기도지사와 박운국 포천시장, 김규배 연천군수 등이 참석해 이·통장연합회 경기북부지부 창립대회를 축하했다.

제1부 식전행사로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공연과 제 2부 본행사로 창립대회 및 주민 화합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제3부는 각 시·군별로 오찬을 실시했다.

이날 순학규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통장은 국민의 가장 친근한 벗"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이·통장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경섭(사진)지부장은 "중앙회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경기북부 지역 3천264명의 회원 권익보호와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행정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선봉에 나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26)

선진 교육환경 소홀아람어린이집

원장 임미숙



"우리는 건강한 어린이, 질서를 지키는 어린이, 호기심 많은 어린이, 꿈을 키우는 어린이, 생각하는 어린이,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어린이, 자기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어린이, 긍정적인 어린이, 웃는 어린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어린이, 가족을 사랑하는 어린이로 교육하겠습니다."

관인 소홀아람어린이집의 교육방침이다. 포천시 소홀읍 초가팔리 144-3번지 숲속의 공원과 같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완벽한 유아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소홀아람어린이집(원장·임미숙)은 자연학습과 함께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과 동물사육장, 수영장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견학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과 철저한 위생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로 교육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소홀아람어린이집은 7차 교육과정의 일환인 통합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의 발달수준에 맞춘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사고와 안

정된 정서, 예의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한 균형잡힌 교육이 특징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전 교과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기초과학, 기초체력 향상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소홀아람어린이집은 0세~6세 아동도 부모님의 월소득에 따라 구분별로 경감이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편보·편부 가정의 자녀는 정부의 지원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일제를 운영하고 영아반도 개설했으며 방과후 영어, 미술, 피아노, 속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임 원장은 "소외된 계층,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도입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

육과 상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체험학습교육으로 자연과 어린이 주제로 자연학습, 농사학습, 예절교육, 민속놀이, 수영, 졸업여행, 연날리기, 미술활동, 캠프, 눈썰매 타기 등 계절 및 단원에 따라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생생한 경험과 교문을 넓혀주는 교육을 매주 또는 매월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시간을 정하여 전화하면 차량을 이용해 방문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소홀아람어린이집 교무실에서 실시하며 입학대상은 12~36개월 영아반, 4~7세까지 유아반, 유치반 등이다.(문의 543-7907 5033)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조합장기고

가산농협 이렇게 운영합니다



가산농협 조합장 심재호

가산농협은 조합원 2천31명, 준조합원 4천81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쌀 고품질을 위한 벼 계약재배 농가에 비료와 농약을 무상으로 연간 1억5천만원여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원사업 차원으로 올해는 8억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2년도부터 시작한 가산농협의 특색사업으로 신입대학생 장학금지원사업은 첫째 20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70명에게 4천5백50만원, 올해는 지난 10월 83명에게 4천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현재까지 총 173명에게 1억1천5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도에 극심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총 10억원의 연 4%의 저리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어려운 농촌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임직원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농협 전이율을 바탕으로 순이익 8억9천1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5%를 달성하는 쾌거를 일구어 출자배당 8%와 출자 배당금 150%를 사업 이용 배당금으로 총 4억3천9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포천 관내 농협에 유일한 RPC로 가산·내촌지역에서 생산한 산물벼 전량을 농협이 수매하여 조합원 편익사업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억4천300만원의 순손익으로 목표대비 386% 달성한 든든한 가산농협입니다.

특히 농민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실익을 위해 상호금융 대출금 이자를 최고 8.5%이하로 전면 조정하였으며 앞서가는 농협, 농민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헌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과 만나보십시오

ABS 및 각종 수지 컬러링 전문업체 '쥬신동명케미칼'



합성수지 및 종합용접 및 플라스틱 원료전문 생산업체로서 다양한 메이커 제품과 함께 최신식 설비는 물론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컬러링 작업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쥬신동명케미칼. 쥬신동명케미칼은 1993년 서울 마장동에서 신동명프라스틱으로 설립된 이후 직원 30여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기업으로 2001년 포천시로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쥬신동명케미칼은 1천여명의 회사규모에서 최신식 기계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컬러 플라스틱 원료를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쥬신동명케미칼은 [LG화학], [효성T&C], [에이포피나 코리아]의 특판 및 대리점으로서 주력제품인 ABS, PS, 아크릴 및 기타수지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다양한 COLORED RESIN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의한 품질의 우수성 확보와 뛰어난 가격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쥬신동명케미칼에서 생산되는 ABS 수지는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부타디엔(Butadiene), 스티렌(Styrene)의 화합물인 고투용·고충격의 고급수지로 전기·전자제품, 고급생활용품, 완구, 음식용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제품과 압출용에 사용됩니다. PS-폴리스티렌(Polystyrene) 수지는 성형가공이 양호한 수지이며 GPPS는 투명성, 착색성, 무독성, 성형가공성이 우수합니다. HIPS는 내충격성, 열안정성, 내후성 및 도장이나 접착의 2차 가공성이 탁월한 제품으로 모든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쥬신동명케미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컬러링 전문업체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 타 업체에 비해 신속한 납품과 열등이 싸게 파는 전력이 주요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플라스틱 업체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이사 양상모